

“너 주려고 옷 챙겨 왔는데...” 기적 기다리며 눈물... 또 눈물



이종행 기자 '세월호 참사' 취재기

어두운 야산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를 에워쌌다. 가족들은 기자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면서 “(아이들을 잃어 버린) 심정이 어찌나고?”라고 반문하면서 거리를 좁혀왔다.

나는 무릎을 꿇은 뒤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진정 해라지 못해 죄송하다”고 애원했다. 가족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뒤돌아섰다.

기자는 꿈 속에서 죄인이 돼 있었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선 잠을 깬 기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쉬 가지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고서 있는 기자를 맞아 라면 한끼를 대접해주는 한 실종 학생의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이들의 고통을 진정 이해하고 있을까? 자문하며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나같이 구구절절하고 마음이 미어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들에게 취재를 위한 질문을 해야하는 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시신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살아 있으니, 병원으로 가 달라”는 유족의 말을 들은 한 구급대원이 심장박동측정기를 이용해 심장 상태를 확인해줬다는 사연을 전해들었다. 나는 유족을 찾아내 “실제로 살아 있느냐. 시



“아픔 함께합니다”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백제실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광주시 북구 다문화가족센터 이주여성 30여명이 헌화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심정 어떠신가요” “평소 아이 성격은...” 묻자

50대 남성 “저리 가라...말 걸지 말라” 호통

비통의 현장 취재하는 현실, 기자로서 자괴감

소식을 전해 듣고 진도로 내려간 이후 12일 밤낮을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취재해왔다. 현장에서 만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비통(悲痛) 그 자체였다.

60대 중반의 어르신은 “어미야 자식한테 오는 시간이 이리 머나, 시메미가 애가 탄다. 얼른 오나라. 기적을 기다린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40대 중반의 한 어머니는 “아들아, 너한테 주려고 옷과 이불, 신발을 챙겨왔는데, 내가 너에게 줄 옷과 이불을 쓸 줄 몰랐다”며 오열했다.

아들·딸·형·오빠 등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해 비통함에 빠진 이들을 취재한다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마음도 편치 않았다. 기자가 한 가족의 사연을 취재하기 위해 다가가지, 50대 남성은 “말 걸지 마라. 저리 가라”며 호통을 쳤다. 이를 보고 “저분 심정을 이해해 달라. 조금 있다가 오면 내가 말해주겠다”면서 오히려 기자를 따듯이 감싸주는 실종자 어머니를 보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 대기소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비를 맞

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라고 취재했다. 절망에 빠진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울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질문을 하고 팩트를 확인해야만 했다. 심지어 팽목항 임시 시신 안치소에서 자신의 자식이 맞는지 확인한 뒤 슬피 우는 유족에게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도 “지금 심정”과 “평소 어떤 아이였는지”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며 괴로워했던 적도 있었다.

28일 현재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엔 아직도 100명 이상의 실종자 가족들이 생환자 소식을 기대하며 버거운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과 잘못된 시스템,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바로잡도록 선도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일 것이다. 다만 이 역할을 쫓다가 실종자 가족들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진정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12일간 현장에서 기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혹은 실종자 가족·유족들의 마음을 진정 해라지 못하고 다치게 한 것은 아닌지,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golee@kwangju.co.kr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던 기다림 “다시 태어나 만나자” 그리움으로

메모지에 담긴 가족들 심경

‘희망과 기다림에서 애타는 그리움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실내체육관 입구 유리창은 생때같은 자식들을 차가운 바닷속 검검한 배 안에 둔 부모의 심정을 담은 메시지로 가득하다. 10일 남도록 가족을 찾아내지 못한 잔인한 하루하루가 계속되면서 여기에 붙여진 글도 바뀌고 있다.

사고 초기 희망을 담은 글로 가득했던 메시지는 어느덧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다시 못보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리움과 두려움을 담은 글이 많아지고 있다.

사고 초기 진도실내체육관 정문 출입구 유리창에 하나씩 붙었던 메시지는 대부분 희망이 드러났다. “아들아! 차가운 바닷속에서 뭐하고 있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다. 사랑해, 어서 아빠 품으로 돌아와!”, “빨리 돌아와. 엄마가 따뜻한 밥 해놓을게.”, “내 딸아,

엄마·아빠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얼른 와, 어서 빨리 우리 가족 다같이 집으로 가자. 아빠가.”

사고 발생 1주일까지도 대부분의 글에는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엮여있었다. 사고 발생 이후 열흘이 넘어가고 자원봉사자 등까지 참여하면서 메시지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우리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안녕! 이담에 다시 태어나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만나자!” 등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슬픔이 녹아 있었다.

28일에는 “이생에서 만날 수 없다면 다음 생애에 다시 부모·자식의 연으로 맺자”는 내용의 메모지가 나붙었다.

그럼에도, 진도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다. 정녕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 /김형호기자 khh@/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늘어가는 체육관 빈자리... 눈물도 말라 하루종일 사고현장 바라보며 긴 한숨

지쳐가는 가족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13일째인 28일, 약 2주간의 시간을 애태우며 보낸 실종자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다.

특히 전날부터 강한 물살과 좋지 않은 기상 탓에 구조·수색작업이 난항을 겪자 실종자 가족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체육관의 늘어나는 빈 자리만큼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아침부터 사고 현장 쪽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어느덧 팽목항에서의 일상이 됐다.

팽목항에서 뱃길로 1시간 거리인데다 섬들이 가로막고 있어 사고 현장이 보일 리 만무하지만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아들 딸 등을 생각하면 마냥 답답해지는 마음에 허연없이 바다만 바라보게 된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분 비바람은 실종자 가족들을 더욱 지치게 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아서 일까, 감기 증세를 보이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날은 단원고 1·3학년 학부모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팽목항을 찾아 실종된 2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봉사자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차마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뒤에서 눈물짓다가도 실종자 가족들이 추위를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뭐라도 챙겨 먹고 힘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식거리나 음료 등을 손에 쥐어주고 있다.

팽목항 한편에 놓인 제단에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과자, 과자, 음료수 등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다. 불교 신자인 실종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이곳을 찾아 사고 해역 쪽을 바라보며 실종자 귀환을 기도했다.

/임준표 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라대 노안리식 / Kam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랑즈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용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